섬유매체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중학생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Using Fabric Medium on Emotional Intellig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영남대학교 대학원 미술치료학과
박사과정 박 치 홍**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미술치료학과
부 교 수 김 갑 숙***
Dept. of Art Therapy Graduate School of Yeungnam Univ.
Doctoral Course : Park, Chi Hong
Dept. of Art Therap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Yeungnam Univ.
Professor : Kim, Gab Sook

<Abstract>

This thesis seeks to inquire into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using a fabric medium on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This application of fabrics to group art therapy is helpful in terms of gender roles and equality from an educational aspect and can help activate and control positive sentiment. Therefore, it was believ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emotional intelligence. The subjects were 28 boys and girls who were students of the Supportive Project for the Priority Region of Educational Welfare Investment. The measurement tool is a revision of the emotional intelligence test of Mun Yong-Rin (1997), which itself was based on the emotional intelligence model of Mayer and Salovey (1997). The data materials are analyzed by SPSS (ver. 17.0 for Windows). To test the homogeneity of the groups, the Mann-Whitney U test was carried out, and to analyze the effect of this program, the Wilcoxon signed ranks test was carried out.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is program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especially on their empathy and activation of thinking among the subcategorie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verifies the effect of the improvem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by way of group art therapy using fabrics, adding a fabric medium to the art medium. As the subject group was restricted to 28 adolescents in the Supportive Project, it is not easy to generalize the achievement to the entiresphere of group art therapy.

▲주요어(Key Words) :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섬유매체(fabric medium)

* 본 논문은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주 저 자 : 박치홍 (E-mail : pch8919@hanmail.net)
*** 교신저자 : 김갑숙 (E-mail : pinakim@hanmail.net)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도기로 인지적, 생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자아 정체감을 찾아 가는 상황에 있으며, 다양한 정서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의 부족과 조절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초기 청소년기의 단계인 중학생들은 "변화와 유동"의 상태(정향진, 2002)로서 부모로부터 분리, 독립하기 시작한다. 또한 초등학교와는 다른 학습 환경으로 인해 많은 갈등을 느끼며, 사회적 역할과 가치체계의 변화로 인해 불안과 우울, 분노, 공격성 등의 정서 행동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중학생 시기는 학교 적응의 문제가 가시화되는 시점으로 보는 선행 연구(문은식, 2005; 서동식, 2002; 황재기, 1999)들을 볼 때, 이 시기의 정서 발달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정서는 개인에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정, 특질이라 여기고 연구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무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최근 학생들의 정서적, 인성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인간의 지적 능력만을 강조하던 기존의 IQ와 대비되는 개념인 'EQ(Emotional Intelligence Quotient)'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문용린, 2001). 다행히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과 정서적 발달 및 수준과의 관계를 보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정서적 영역을 통해 청소년들이 겪는 발달 및 환경상의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및 대처방법, 심리적 부적응의 조절 방법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서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정서 지능에 대한 최근의 연구 방향은 정서 지능을 단순히 공감 능력이나 감수성만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를 능숙하게 처리하는 인지적 능력이나 적응 기제로서 보다 구체화 되고 있다(이보경, 2004).

Goleman(1995)은 인간의 정신 능력을 IQ만으로 측정할 수 없으며, 인간관계의 적응과 성공은 머리의 힘인 지능이 아니라 가슴의 힘인 정서지능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였다. 또한 정서를 사려 깊게 통찰하고 활용한다면 인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인지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김현준, 2007). Goleman(1995)은 어릴 적부터 잘 개발된 감성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학교생활과 인생에 있어서 만족감과 효과성이 높으며, 자신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주는 마음의 습관을 터득할 기회도 아주 많아졌다고 전한다. 그러므로 영·유아기부터 개발된 정서를 잘 유지하고 부족한 부분을 함양하는 것은 제2의 전성기를 맞는 청소년기에 한 번 더 검증되어야 할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김말숙, 2002).

청소년기의 정서지능 개발에 대한 연구의 당위성은 정서지능의 발달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는데 Goleman(1995)이 말한 바와 같이 지각관련 영역이 유년기의 초기에 거의 성장을 완료하는데 비해 정서적 자기 통제, 이해, 기술적 반응과 관련된 두뇌 영역은 16-18세에까지 성장을 계속한다는 사실에서 청소년의 가장 큰 심리 자원인 정서를 올바른 방향으로 발달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이보경, 2004).

청소년기는 강렬한 감정을 많이 경험하는 데 비해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어 나가는 대응방법이 세련되지 못하다. 이들에게 자신의 정서를 정확히 인식하고 정서 상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의 접근은 매우 긍정적인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청소년의 정서를 함양시키는 다양한 교육적 방법 중 최근 예술 활동이나 창작활동을 활용한 기법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미술이라는 매개체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표현을 촉진시켜 표출을 통한 갈등 조정 및 부정적 감정을 승화시킴으로써 자아를 성장시키므로(한국미술치료학회 편, 2000)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집단 미술치료는 자신의 문제를 자인하고 이를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되는 과정이 촉진되며(김동연, 문혜숙, 1999), 또래 집단과의 공유와 공감을 통하여 집단으로부터 문제 해결의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집단 활동 과정에서 미술매체의 선택이나 색상의 선택, 미술 표현의 의지적인 결정을 자신이 하고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경험(전미향, 1998)을 하게 되는데, 이는 창작활동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고, 미술매체를 통해 집단구성원의 상호작용과 성취감을 고취시키게 된다(주경애, 2009).

미술을 통한 심상훈련과 심상화는 비언어적 수단으로 통제를 적게 받으며 직접적인 내면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데, 최근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 매체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매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화 매체(김우식, 2003), 한지(정명선, 2003), 수채화 매체(이수진, 2002; 박신자, 2007), 점토 매체(이승미, 2007; 서미화, 2007)를 활용한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매체들은 미술 재료로써 사용되고 있는 매체들이며 그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알려진 편이나, 비정형화된 매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실생활에서 우리가 늘 함께하고 있는 의식주 중 의복의 개념인 섬유는 다양한 매체들 중에서도 자연친화적이며, 신체를 보호하고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사용되어 온 재료로써 친근함과 접근의 용이성을 가진다. 섬유매체를 프로그램에 활용한 경우를 살펴보면 감각 통합의 촉각 자극을 위한 매체로서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촉감을 가진 옷감(실크, 타월, 거친 옷감, 스타킹)을 아용하여 묶기나 풀기를 반복하

면서 소근육의 향상을 꾀하고 촉각을 활성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김현지,2006). 또 김화정(2004)의 연구에서는 티셔츠를 염색하여 성취감을 느끼고 서로 선물함으로서 사회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으며, 윤명경(2005)의 연구에서는 정신지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미술치료에서 하트 모양의 쿠션을 만들고, 그것을 던지고 안아봄으로서 결과물에 대한 성취감과 타인에 대한 인지를 가능하게 하였다고 전한다. 또 이지연(2006)의 사춘기 여아의 미술치료 단일 연구 사례에서는 홀치기 염색기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매체에 대한 흥미와 성취감을 유발시킬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섬유매체를 전 회기에 걸쳐 사용했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아 섬유매체의 활용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인류생활에 있어서 섬유는 다른 어떤 재료의 발견과 사용보다도 비교적 앞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예로부터 해오던 여성의 전업적인 일의 한 부분으로 다양한 기법을 통해 표현되어 온 매체이다. 따라서 섬유를 다루는 일이 여성에게 한정되어 행해지고, 여성만의 전유물로 생각되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녀의 차이가 생물학적 차이가 아닌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한 차이라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그동안 사회적으로 규범지어 왔던 남녀에 따라 이분 화된 전통적인 성역할이 우세하게 자리 잡고 있다(유희정, 2000). 과거에 남성은 경제적인 부양의 의무를, 여성은 가사와 양육을 담당했지만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여성과 남성의 구분이 거의 약해지고, 남성 못지않게 여성의 창의적 생산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성역할에 대한 개념이 사회 및 문화적인 면에 의해 그 구분이 모호해지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 개인이 성정형화된다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양성성에 대한 견해는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를 위한 교육적 방안으로 가정교과에 등장하는 실과활동은 성차별적인 고정 관념과 행동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들에게도 섬유매체를 활용한다는 것은 건강한 성역할 개념과 양성 평등의 교육관점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매체와는 차별화된 치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생의 정서적인 부분을 능동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대처 방법을 촉진시킬 것이라 생각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섬유매체는 미술치료의 매체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섬유매체를 활용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섬유매체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남 녀학생을 혼합하여 집단을 구성하기보다는 남·녀 중학생을 별도의 집단으로 구성하여 섬유매체의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성 차이에 관계없이 섬유매체가 미술치료의 중요한 매체로 활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목적 1> 섬유매체를 활용한 집단 미술치료가 남학생의 정서 지능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목적 2> 섬유매체를 활용한 집단 미술치료가 여학생의 정서 지능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A시의 B구에 위치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의 C중학교와 D중학교에서 각각 실시되었다. C중학교와 D중학교는 각 학교의 교육복지실에 지역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으로 심리적, 정서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다. 연구대상 표집을 위하여 각 학교 교육복지실에서 심리, 정서와 관련하여 1회 이상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41명의 학생 중 부모의 동의를 받은 두 학교의 학생 32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C중학교의 남학생 16명 중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각각 8명씩, D중학교의 여학생 16명 중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각각 8명씩 무선 배치하였으며, 남학생 실험 집단과 여학생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실시과정에서 방학기간 중 가족 여행과 집안 사정상 집단 미술치료 참석 빈도가 낮았던 2명을 제외하고, 남학생, 여학생 실험 집단의 각 7명, 남학생, 여학생 통제집단의 각 7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 중 실험집단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섬유매체를 활용한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전 정서지능에 대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맨 휘트니 U검정(Mann Whitney U test)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남학생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 여학생 모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질집단임을 알 수 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대상	나이	가족관계	특 성
남학생 실험 집단	A	14	부(54), 모(50), 형(22)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편임. 상담실에 들어오면서 눈물을 글썽거리고 코를 훌쩍거리는 모습을 보임. 울컥하면서 감정이 격해지는 모습을 가끔씩 볼 수 있음. 피곤하고 잠이 온다는 말을 많이 함.
	B	14	부(51), 모(47), 누나(20)	덩치가 또래에 비해 작은 편이고 체격도 왜소함. 목소리가 쉰 듯 거칠고 에어컨을 켜면 유난히 춥다면서 웅크림. 내성적이고 자신감이 없어 보임.
	C	14	부(41), 모(40), 형(16)	수급권자. 발음이 불분명하고 웅얼거리듯 이야기함. 왕따를 심하게 당해서 복수하고 싶다는 말을 했으며, 영화보기나 판타지에 빠진 듯 보임.
	D	14	부(44), 모(44), 형(18)	억양이 독특하고 눈 맞춤이 지속적이지 않으며, 자세가 약간 엉거주춤함. 질문에 생각하는 시간이 길고 모호하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음. 성적이 우수하나 엄마와의 갈등을 이야기함.
	E	15	모(39), 남동생(12)	수급권자. 뇌종양으로 인한 신체지체가 있음. 부모의 이혼으로 현재 엄마, 남동생과 생활함. 동생과의 갈등을 많이 이야기함.
	F	15	부(43), 모(42), 형(17)	키는 작지만 단단한 체구로 안경을 꼈음. 반항적으로 이야기 하지만 목소리가 작고 자신이 없는 듯함.
	G	15	조모(72), 여동생(14)	부의 재혼으로 조모와 생활함. 눈치를 많이 보고 목소리가 아주 작으며 횡설수설하듯 이야기함. '잘 모르겠는데요."라는 말을 많이 하고 청결 상태가 좋지 않음.
여학생 실험 집단	I	14	부(42), 모(42), 오빠(16)	불안한 듯 상담자의 눈치를 많이 보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주위를 살피고 드러내기를 꺼려함. 집단원의 반응을 살핀 후, 그 상황에 적절히 반응함.
	J	14	부(38), 모(36), 언니(18),남동생(12)	안경을 착용하고 긴 생머리. 성격은 쾌활한 편이며 표현이 직선적이고 다소 비판적임. 주목받고 싶은 욕구가 많음.
	K	14	조부(72), 조모(67), 부(43), 남동생(11)	부모의 이혼으로 현재 조부모, 부와 함께 생활함. 모와는 한번 씩 왕래가 있지만 집에서 싫어한다고 함. 가정환경의 영향인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음.
	L	14	부(14), 모(39), 오빠(15)	어리광을 부리 듯 말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자기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며, 잘 들어주지 않으면 투덜거리며 짜증을 냄.
	M	14	부(45), 모(45), 언니(21), 남동생(9)	A의 눈치를 많이 보고, 금방 눈물이 날 것 같은 표정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불안한 듯 계속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거나 엎드려서 피곤하다는 말을 함.
	N	14	부(51), 모(47), 언니(24), 오빠(20)	상담자의 옷차림새를 살피고, 쳐다보면서 웃기도 함. 외모나 치장하는 것에 특별히 관심이 많고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이 있어 보임.
	O	14	모(39세)	부의 재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나, 다시 이혼하여 엄마와 둘이서 생활함. 별로 웃긴 일도 아닌데 일부러 지나치게 웃으며, 모든 집단 원에게 너그러운 편임.

<표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성별	정서지능	집단	N	평균 순위	순위합	Z
남학생	정서지능 전체	실험	7	7.93	55.50	-.384
		통제	7	7.07	49.50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실험	7	6.86	48.00	-.580
		통제	7	8.14	57.00	
	감정이입 능력	실험	7	8.79	61.50	-1.155
		통제	7	6.21	43.50	
	사고촉진 능력	실험	7	7.79	54.50	-.257
		통제	7	7.21	50.50	
	정서활용 능력	실험	7	8.00	56.00	-.452
		통제	7	7.00	49.00	
	정서조절 능력	실험	7	7.43	52.00	-.064
		통제	7	7.57	53.00	
여학생	정서지능 전체	실험	7	6.43	45.00	-.959
		통제	7	8.57	60.00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실험	7	6.00	42.00	-1.375
		통제	7	9.00	63.00	
	감정이입 능력	실험	7	8.50	59.50	-9.05
		통제	7	6.50	45.50	
	사고촉진 능력	실험	7	6.29	44.00	-1.099
		통제	7	8.71	61.00	
	정서활용 능력	실험	7	8.50	59.50	-9.21
		통제	7	6.50	45.50	
	정서조절 능력	실험	7	6.07	42.50	-1.295
		통제	7	8.93	62.50	

2. 연구도구

1) 정서지능 척도

본 연구에서는 Mayer와 Salovey(1997)의 정서지능 최근 모형에 입각하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문용린(1997)이 제작한 청소년용 정서지능검사를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근모형에 감정이입이라는 영역을 포함하여 정서 인식 및 표현, 감정 이입, 사고 촉진, 정서활용, 정서조절 능력이라는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이 자신의 정서지능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를 스스로 평정하는 자기보고식(self-report test)검사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문항분석을 통하여 전체정서지능과 관련성이 낮은 13문항을 제외하고 27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5단계로 되어 있고, 부정적인 역 문항일 경우 역으로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29로 나타났다.

2) 미술치료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활용된 정서지능의 향상을 위한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강연희(2008), 김말숙(2003), 김문심(2008), 양은주(2003), 양민철(2006), 하은정(2007), 한선주(2008), 홍수현(2006)의 프로그램을 근거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또 섬유매체의 활용은 윤명경(2005)의 바느질을 이용한 하트 모양 쿠션 만들기, 김현지(2005)의 촉감과 운동감각을 위해 깃털이나 부드러운 천으로 자극하기, 이지연(2006), 전경숙(2005), 표현순(2005), 김원경(2003)의 홀치기염색과 손수건 염색, 스카프 염색과 김화정(2004)의 티셔츠 염색하기를 참고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운용 방법은 친밀감 형성 단계, 자기 탐색 및 표현단계, 미래준비 및 종결 단계의 총 3단계로 나뉘어져

<표 3> 섬유매체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단계	회기	주 제	목 표	활동내용	준비물
사전 검사					
친밀감 형성 단계	1	규칙 정하기, 나는 누구?	규칙정하기, 친밀감 형성, 정서 인식 및 표현	집단원간 의논하여 규칙을 정한 후, 실크에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자유화를 그리고 이야기를 나눈다.	천, 염료, 붓
	2	협동 자유화	긴장 완화, 정서 인식 및 표현	광폭의 광목천에 협동자유화를 그리고 이야기를 나눈다.	천, 펜, 염료, 붓
자기 탐색 및 표현 단계	3	자아상	정서 인식 및 표현	스펀지를 뜯어 자신을 표현하는 자아상을 꾸미고 이야기를 나눈다.	스펀지, 가위, 칼
	4	자유 작업	정서 인식 및 표현	광폭의 천과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천, 가위, 바늘, 송곳, 칼, 실, 풀
	5	내면 모습	정서 인식 및 표현, 감정 이입	나의 내면 모습을 그리고 탐색하여 이야기 나눈다.	A4용지, 연필
	6	나의 감정	정서 인식 및 표현, 감정 이입	평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종류와 크기에 따라 분할하고, 부직포를 겹쳐서 파내거나 오려서 표현한다.	부직포, 풀, 칼, 가위, 실, 바늘
	7	핵심 감정	정서 인식 및 표현, 정서 조절 및 활용, 감정 이입	자신이 만든 감정 파이를 보면서 자신의 핵심 감정을 찾고 이야기 나눈다.	펠트 천, 풀, 칼, 가위
	8	잊고 싶은 기억	사고의 촉진, 정서 조절 및 활용	지우고 싶은 기억을 손수건에 그리고 빨래한 후, 새로운 색으로 염색하며 이야기 나눈다.	손수건, 청화펜, 염료
	9	나의 장·단점	사고의 촉진, 정서 조절 및 활용	자신의 장·단점을 찾고 친구들의 장점을 찾아주면서 지지와 격려의 이야기를 나눈다.	A4용지, 연필
	10	나의 손	사고의 촉진, 정서 조절 및 활용	나의 손을 상징하는 장갑을 꾸미고 활동 시에 느꼈던 감정을 나눈다.	장갑, 염료, 붓, 매직, 실, 바늘
미래 준비 및 종결 단계	11	협동 홀치기	사고의 촉진, 정서 조절 및 활용	지금까지의 나를 생각하며 모두 함께 홀치기 염색하여 집단원간의 결속력을 다진다.	천, 염료
	12	미래를 향한 첫걸음	사고의 촉진, 정서 조절 및 활용	미래를 향한 첫걸음에 대해 시트 지를 완성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A4용지, 연필, 사인펜
	13	소망나무	사고의 촉진, 정서 조절 및 활용	소망 나무에 자신의 소망을 담은 열매를 만들어 붙이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다양한 천, 풀, 가위
	14	나에게 주는 선물	사고의 촉진, 정서 조절 및 활용	자신에게 주는 선물의 의미로 나만을 위한 티셔츠를 만들고 이야기 나눈다.	티셔츠, 물감, 붓
	15	칭찬 릴레이	사고의 촉진, 정서 조절 및 활용	지금까지의 활동을 돌아보면서 자신과 집단원에게 긍정적인 칭찬과 지지의 편지를 쓰고 이야기를 나눈다.	4B, A4용지
사후 검사					

있으며, 단계별 목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적응 및 친밀감 형성 단계(1~2회기)에서는 이완을 위한 염색기법을 사용하여 집단원간에 서로를 알리고 인식하며, 광폭의 천에 협동자유화를 그리면서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목표를 둔다. 자기 탐색 및 표현 단계(3~10회기)에서는 스펀지 조각기법을 통한 내면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며, 천과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정서를 표현하고, 부직포와 바느질을 활용한 감정파이를 만든다. 이는 활동을 통해 집단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정이입을 통한 공감을 가능하게 하며, 염색을 활용해 지우고 싶은 기억을 새로운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등 문제 상황 시 긍정적인 사고를 촉진하도록 한다. 미래 계획 및 종결 단계(11~15회기)는 협동 홀치기를 통해 집단원간의 긍정적인 교류를 경험하게 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한 실천 계획 및 자신에게 선물하는 티셔츠를 만들어 자신의 정서를 이용해 생산적인 활동의 효과를 고취시키는데 그 목표를 둔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섬유매체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섬유매체를 활용한 집단 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2009년 7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 남학생 실험집단의 7명과 여학생 실험집단의 7명을 대상으로 각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은 맞벌이 가정이 많은 관계로 방학동안 집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정서적으로 탈선의 위험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정서 함양의 차원에서 본 프로그램은 방학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주 2~3회, 120~150분간 총 15회기로 각 학교의 교육 복지실내 상담실에서 본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으며, 남학생 통제집단과 여학생 통제 집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전검사는 Mayer와 Salovey(1997)의 정서지능 최근 모형에 입각하여 문용린(1997)이 제작한 청소년용 정서지능검사를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2009년 7월 10일에 남학생 집단, 2009년 7월 13일에 여학생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후검사는 실험 기간이 끝난 뒤 2009년 8월 17일에 여학생 실험집단, 2009년 8월 21일에 남학생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남학생 통제집단과 여학생 통제집단은 개학 후인 8월 31일에 실시하였다.

회기별 진행과정의 구체적인 예는 <표 4>와 같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섬유매체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중학생의

<표 4> 회기 진행 예

회 기	1회기
주 제	나는 누구?
목 표	▸ 규칙정하기 ▸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유발 및 친밀감 형성 ▸ 정서 인식 및 표현
준비물	천, 염료, 붓
활동과정	**활동내용**
도 입 (20분)	▸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목적 및 전체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 프로그램 참여시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고 서약서를 작성한다.
활 동 (60분)	▸ 자신의 별칭을 정한 후, 별칭을 기억하기 위해 게임을 한다. "A옆에 B입니다. A옆의 B옆에 있는 C입니다." "앗싸, 누구누구, 앗싸, 누구누구" ▸ 자유화 그리기 - 지시문 "실크에 염료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실크는 종이와 달리 재질이 부드럽고 물이 닿으면 잘 번지는 성질이 있으며, 아주 아름답게 채색됩니다. 부드럽게 번지는 느낌을 충분히 느껴보면서 자유로운 그림을 그려보세요." ▸ 그림에 대한 설명 및 느낌을 나눈다. ▸ 활동에 대한 느낌을 나눈다.
나누기 (20분)	▸ 매체의 새로운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자신이 그린 그림을 편안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집단원들이 발표할 때 귀 기울여 듣도록 독 려한다. ▸ 느낀 감정을 간단한 단어로 돌아가면서 발표하도록 한다.
정 리 (20분)	▸ 활동 시 사용한 매체와 주변 정리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17.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표본의 사례수가 적어 모집단의 분포와 무관한 비모수 검증(nonparametric test)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검증을 하여 Cronbach's α계수로 나타내었다.

둘째,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의 동질성 검증을 위하여 실험, 통제집단의 사전점수를 이용하여 맨 휘트니 U검정(Mann Whitney U test)을 실시하였다.

셋째, 섬유매체를 활용한 집단 미술치료가 남, 여학생의 정서지능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 통제 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를 이용하여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s test)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섬유매체를 활용한 집단 미술치료가 남학생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섬유매체를 활용한 집단 미술치료가 남학생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남학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정서지능 사전, 사후 점수를 이용하여, 비모수 검증인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s test)으로 분석한 그 결과는 <표 5>과 같다.

<표 5>과 같이 남학생 실험집단의 전체 정서지능(z=-2.371,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전 사후 검사를 비교해 볼 때 사전 평균 점수 2.93에서 사후에는 3.30으로 상승하였으며, 실험 집단원 7명 모두 점수가 향상되었다. 그러나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표 5>에서와 같이 감정이입 능력(z=-2.214, p<.05)영역의 사전 평균점수가 3.26에서 사후에는 3.66으로 상승하였으며, 집단원 7명 중 1명은 동률이었고 6명은 점수가 증가하였다. 사고촉진 능력(z=-2.207, p<.05)영역에서도 사전 평균점수 2.78에서 사후에는 3.21로 상승하였으며, 집단원 7명 중 1명은 동률이었고 6명은 점수가 증가하였다. 나머지 영역은 사전 평균 점수에 비해 사후 평균점수가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통제 집단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정서지능의 하위 영역 중 감정 이입과 사고의 촉진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섬유매체를 활용한 집단 미술치료가 여학생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섬유매체를 활용한 집단 미술치료가 여학생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여학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정서지능 사전, 사후 점수를 이용하여, 비모수 검증인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s test)으로 분석한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과 같이 여학생 실험집단의 전체 정서지능(z=-2.366,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전 사후 검사를 비교해 볼 때 사전 평균 점수 3.05가 사후 평균점수 3.40으로 상승하였으며, 실험 집단원 7명 모두 점수가 향상되었다. 그러나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표 6>에서와 같이 감정이입 능력(z=-2.207, p<.05)영역의 사전 평균점수가 3.26에서 3.80으로 상승하였으며, 집단원 7명 중 1명은 동률이었고 6명은 점수가 증가하였다. 사고촉진 능력(z=-2.041, p<.05)영역에서는 사전 평균점수 3.10에서 3.30로 상승하였으며, 집단원

<표 5> 남학생의 사전-사후 정서지능 점수 비교

집단	정서지능	사전 M(SD)	사후 M(SD)	음의 순위 N	음의 순위 평균순위	음의 순위 순위합	양의 순위 N	양의 순위 평균순위	양의 순위 순위합	동률	Z
실험	정서지능 전체	2.93(.393)	3.30(.407)	0	.00	.00	7	4.00	28.00	0	-2.371*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2.59(.428)	2.88(.487)	1	2.5	2.50	5	3.70	18.50	1	-1.687
	감정이입능력	3.26(.516)	3.66(.544)	0	.00	.00	6	3.50	21.00	1	-2.214*
	사고촉진능력	2.78(.648)	3.21(.611)	0	.00	.00	6	3.50	21.00	1	-2.207*
	정서활용능력	3.14(.835)	3.57(.658)	1	1.50	1.50	4	3.38	13.50	2	-1.633
	정서조절능력	3.00(.432)	3.28(.429)	1	3.00	3.00	4	3.00	12.00	2	-1.225
통제	정서지능 전체	2.79(.415)	2.69(.503)	3	4.83	14.50	4	3.38	13.50	0	-.085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2.66(.544)	2.85(.547)	3	3.67	11.00	4	4.25	17.00	0	-.512
	감정이입능력	2.92(.592)	2.64(.641)	3	5.50	16.50	4	2.88	11.50	0	-4.26
	사고촉진능력	2.69(.563)	2.41(.576)	3	4.17	12.50	3	2.83	8.50	1	-.420
	정서활용능력	2.90(.875)	2.42(.738)	4	5.38	21.50	3	2.17	6.50	0	-1.272
	정서조절능력	2.88(.878)	3.20(.864)	2	3.00	6.00	4	3.60	14.40	1	-1.581

*p<.05

<표 6> 여학생의 사전-사후 점수 비교

집단	하위영역	사전 M(SD)	사후 M(SD)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Z
				N	평균순위	순위합	N	평균순위	순위합		
실험	정서지능 전체	3.05(.217)	3.40(.296)	0	.00	.00	7	4.00	28.00	0	-2.366 *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2.83(.372)	3.14(.604)	1	1.5	1.50	5	3.90	19.50	1	-1.897
	감정이입능력	3.26(.302)	3.80(.262)	0	.00	.00	6	3.50	21.00	1	-2.207 *
	사고촉진능력	3.10(.264)	3.30(.313)	0	.00	.00	5	3.00	15.00	2	-2.041 *
	정서활용능력	3.14(.325)	3.47(.465)	2	2.50	5.00	5	4.60	23.00	0	-1.552
	정서조절능력	2.91(.429)	3.22(.593)	1	3.00	3.00	6	3.00	25.00	0	-1.930
통제	정서지능 전체	3.22(.336)	3.17(.172)	3	5.33	16.00	4	3.00	12.00	0	-.338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3.14(.434)	3.04(.230)	3	4.17	12.50	3	2.83	8.50	1	-.425
	감정이입능력	3.21(.550)	3.21(.381)	3	4.00	12.00	4	4.00	16.00	0	-.339
	사고촉진능력	3.26(.274)	3.05(.488)	4	4.00	16.00	2	2.50	5.00	1	-1.160
	정서활용능력	2.95(.590)	3.14(.424)	2	3.50	7.00	4	3.50	14.00	1	-.742
	정서조절능력	3.34(.607)	3.40(.282)	3	4.33	13.00	4	3.75	15.00	0	-.170

*p <.05

7명 중 2명은 동률이었고 5명은 점수가 증가하였다. 나머지 영역은 사전 평균 점수에 비해 사후 평균점수가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통제 집단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정서지능의 하위 영역 중 감정 이입과 사고의 촉진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V. 논 의

섬유매체를 활용한 집단 미술치료가 중학생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남학생, 여학생의 정서지능의 사전-사후 점수를 검증한 결과, 실험집단의 전체 정서지능과 정서지능의 하위 영역 중 감정 이입능력과 사고의 촉진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본 프로그램은 남·여학생 모두 전체 정서지능과 정서지능 하위 영역의 감정이입능력과 사고촉진능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섬유매체를 활용한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정서지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섬유매체를 활용하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남 여 학생 모두 같은 결과를 보였다는 점은 섬유매체나 바느질이 여성의 일이라는 전통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양성평등적인 사고나 활동으로 변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 미술치료가 전체 정서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김동연과 문혜숙(1999)의 연구, 홍현숙(2007)의 연구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또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시설 거주 청소년의 전체 정서지능에 효과가 있었다는 김문심(2008), 하은정(2007)의 연구와 초등학생의 전체 정서지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는 이화자(2009)의 연구,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에 효과가 있었다는 기은정(2006)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집단 미술치료가 보육원 아동의 정서지능 하위영역 중 감정이입과 사고의 촉진 능력에 효과가 있었다는 정명주(2002)의 연구, 북아트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시설 보호 아동의 전체 정서지능과 하위영역인 감정이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백숙경(2008)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심리 정서와 관련하여 교육복지실에서 1회 이상 교육을 받은 대상자들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고, 자신과 비슷한 친구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지지하면서 타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 승화시킴으로써 정서의 변화를 통한 정서지능의 향상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정서지능 특히 감정이입과 사고촉진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점을 프로그램 진행과정을 통하여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진행시 친밀감 형성 단계에는 무의식적 심상을 떠올려 표현하게 하고, 신뢰감 속에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용적인 분위기로 칭찬과 지지의 대화에 초점을 두었다. 이완을 위한 염색기법과 광폭의 광목에 그리는 협동자유화는 집단원간의 친밀감 형성에 도움이 되었으며, 자신과 타인의 관심사와 욕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실크의 부드러운 감촉과 붓이 닿으면서 발색되는 번짐은 이완을 위한 촉진의 효과를 증대시켰는데, 이러한 과정은 섬유매체가 미술 표현의 의지와 창작활동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고, 집단 구성원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감정이입의 능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 탐색 및 표현 단계에는 공감적 대화를 위하여 연구자의 경험이나 감정을 노출하면서 집단원들의 저항을 완화

시키고, 자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집단원간의 감정이입을 통해 수용적으로 지지하는 의사소통의 분위기를 유도하였다. 광폭의 천에 실, 바늘, 물감, 가위, 칼, 송곳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한 자유 작업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게 하고, 매체의 활용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사고촉진의 능력과 연관지어 볼 수 있었다.

내면모습 그리기와 감정파이, 핵심감정 찾기를 통해서는 깊이 있는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타인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수용함으로서 감정이입 능력의 향상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자신의 기억 중 잊고 싶은 기억을 떠올려 그림을 그리고 빨래 빨기라는 의식적 행사를 한 후, 염색하여 새로운 손수건을 탄생시키는 작업은 부정적인 기억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전환시키는 사고의 촉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미래준비 및 종결단계에는 자신의 정서를 활용해 긍정적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안정과 공감의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완성도와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협동 작업을 주로 하였다. 협동홀치기 염색과 자신에게 주는 선물인 티셔츠 꾸미기는 자신에게 주는 정서적 지지의 강화물로서 집단 미술치료를 통한 가치 있는 경험을 기억하게 하는 사고의 촉진 능력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었다. 또한 구체적인 인지의 촉진을 위한 글쓰기 작업인 자신의 미래 계획 세우기와 칭찬 릴레이 편지쓰기는 집단원들의 지지와 격려를 통해 긍정적인 정서의 변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고 촉진 능력의 향상을 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섬유 매체를 활용한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자아상과 자신감을 갖게 하였으며, 감정이입을 통한 집단원간의 지지와 격려는 친구관계에서의 소외나 좌절감에서 벗어나게 하여 전체 정서지능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서지능의 하위 영역 중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던 사고촉진 영역의 향상은 중요한 변화와 사건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사고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상담자와 집단원이 이해해 주고 감정과 사고를 존중한다(홍수현, 2006)는 긍정적인 피드백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서지능의 하위 영역 중 감정이입의 유의미한 변화는 타인의 의견, 특히 그들과 연령이 비슷한 또래의 의견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소년기의 특성과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욕구를 자신과 비슷한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또래들과 서로 이야기하고 이해하면서 깊은 우정을 통해 충족하게 되는데, 자신의 스트레스나 정서적 문제를 표출할 기회를 갖고, 집단원의 표현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공감함으로써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감정이입 능력에 도움을 준 영향으로 생각된다. 이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또래 환경 속에서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게 되는 교환적 협동과 활동이 정서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변인이라는 연구 결과(윤상은, 2008)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서 표현 및 인식, 정서 조절, 정서 활용 영역은 사후 평균점수가 사전 평균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는 자신의 정서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는 했으나, 아직 자기 통찰이 깊게 이루어지지 않은 중학생들은 자기중심성 경향, 상상적 청중의 특성으로 인해 또래에 대한 동조행동(서형옥, 2004)으로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보다 어려운 이유일 수 있다고 본다. 또 청소년들은 발달 과정에서 겪는 갑작스러운 기분의 변화, 저항할 수 없는 감정, 때로는 무질서한 감정들을 경험하면서 성장하게 되는데(이영옥, 2006), 심리·정서적으로 내부 충동성이 많은 과도기적 시기이므로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지 못한 이유로 볼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과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못하여 정서 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제한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A시의 B구에 있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의 청소년 28명(실험집단 남·녀 각각 7명, 통제집단 남·녀 각각 7명)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대상자의 사례수가 적다는 점에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의 특성상 방학 중 학생 관리 차원의 실시로 인해 회기가 다소 짧았는데, 구체적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추후 프로그램의 실시와 동일 집단의 장기적 효과 측정이 필요하다. 또한 방학 프로그램은 학업과 기타 활동으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이 많이 발생 할 수 있는 학기 중과는 다른 상황이므로 이에 따른 변화의 검증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는 정서지능의 측정을 자기 보고식 질문지로 사용하였는데, 개인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모 보고, 교사의 관찰 평정 등을 함께 실시하여 행동적 측면과 질적 분석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섬유 매체를 활용하여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는데, 섬유 매체의 특성상 구체적인 형태나 상황에 대한 재현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으며 기법 상 단시간에 사실적인 양감을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으므로 이에 대해 타 매체와의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미술매체 중 섬유매체의 활용을 통해

정서지능의 향상을 위한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미술치료에서 섬유매체의 활용가능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기존의 고정된 성역할에서 벗어나 양성교육의 측면에서 섬유매체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의 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강연희(2008). 정서지능 강화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정서능력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기은정(2006).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동연 · 문혜숙(1999).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6(1),**207-244.

김말숙(2002).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보육시설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문심(2008). 집단미술치료가 시설거주 청소년의 정서지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우식(2003). 한국화 매체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준(2007). 청소년의 정서지능과 사회지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현지(2006). 발달장애아동의 촉각중심 감각활동을 위한 미술치료 매체 활용방안.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화정(2004).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용린(1996). 한국 학생들의 정서지능 측정연구,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 서울: 삼성 생명 사회종신 건강 연구소/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_____(1997). EQ의 의미와 중요성. 교육행정지도자과정 제72기 연수교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행정연수원.

_____(1998). 초등학교에서의 정서지능 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 지도자 과정 현장교육연구보고 98-1. 서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행정연수원.

_____(2001). 학교에서의 정서지능 개발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사대논총 62.** 서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27-53.

문은식(2005). 중학생의 정서지능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교육연구논총 26(1).** 147-161.

박건아(2008). 청소년의 정서 표현성,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감정, 자기 조절 능력이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애(2005). 비만도와 신체상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신자(2007). 수채화 매체를 활용한 집단 미술치료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문화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숙경(2008). 북아트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시설 보호 아동의 정서지능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학교 동서보완 의학대학원

서동식(2002). 정서지능과 자아개념 및 학교 적응 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미화(2007). 점토 매체 중심 미술치료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부주의 행동과 과잉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형옥(2004). 또래리더에 의한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은주(2003).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보육시설 아동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민철(2006). 감성적인 공감을 통한 EQ향상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왕경애(2006). 퀼트행위에 내재된 여성심리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명경(2005). 정신지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 자기 효능감과 자기표현력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상은(2008). 중학생의 정서지능과 또래관계에 대한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보경(2004). 청소년의 정서지능 및 스트레스 대처유형이 우울 및 비행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수진(2002). 수채화 물감을 사용한 비구조적 미술치료가 장애아동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승미(2007). 점토를 통한 집단 미술치료가 다문화가족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이영옥(2006). 신체상을 주제로 한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신체상과 자아상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지연(2006). 사춘기 정신지체 여아의 미술치료 단일사례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화자(2009). 집단 미술치료가 초등학생의 자기 표현력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대구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경숙(2005).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 미술치료 사례연구.:농촌지역 5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전주 교육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춘희(2006).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정서 인식 능력에 미치는 효과.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명주(2002). 집단미술치료가 보육원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명선(2003). 한지를 이용한 집단 미술치료가 노인의 죽음 불안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정미경(2003). 실과 가정과 영역을 통한 인성 교육의 방안. **한국실과교육학회, 16(3),** 141-161.

정향진(2002)."중학생들은 미쳤어!" :초기 사춘기에 대한 미국인들의 민속심리모델. **비교문화연구, 8(1),** 3-7.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원 비교문화연구소.

조경옥(2005). 집단미술치료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재향(2006). 아동, 청소년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정서지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표현순(2005). 집단노인 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이 기억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은정(2007).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보육시설 청소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미술치료학회 편(2000).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대구: 동화문화사.

한선주(2008). 불안이 높은 아동의 정서지능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수현(2006). 아동의 정서지능과 대인불안에 관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시설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현숙(2007).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정서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재기(1999). 청소년의 감성지능과 학업성취, 적응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 Basic Books.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Y.: Bantam Books.

Mayer, J. D., & Salovey, P.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21.

Mayer, J. D., & Salovey, P.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P. & Sluyter, D. (1997),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 N.Y.*: Basic Books.

Mayer, J. D., Salovey, P. & Dipaoll, M. (1990). Perceiving affective content in ambiguous visual stimuli: A compon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772-781.

□ 접 수 일 : 2010년 03월 15일
□ 심 사 일 : 2010년 03월 24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06월 06일